이스람 思想 概要

WHAT IS ISLAM

طبع على نفقة الفقير إلى عفو الله ورضاه غفر الله له ولوالديه ولأهله ولأولاده وللمسلمين
هذا الكتاب وقف لله تعالى يوزع مجانا ولا يباع

目　　次

(1) 統一性의 宗教

1. 神의 唯一性

"이스람教"는 "一神教"를 가르치고 多神教를 인정하지 않는 宗教이다. 무스림은 "神"을 "알라"라고 부른다.

이스람教에 의하면 알라는 唯一神이고 個体이며 妻子息이 없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存在이다. 알라는 자식을 낳지도 않고 어미의 몸으로부터 낳아 지지도 않는다.

알라는 始初이자 窮極이며, 永遠이고 無限이며 全知全能하고 遍在한다. 또한 造物主이며 扶養者이고 萬物을 아껴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萬事에 義로웁고, 弱者나 被压迫者의 同情者이고 그들에게 迫害를 加하는 惡에 대한 復讐者이고 慈悲로우신 분이고 사랑, 指標, 친구, 壯嚴栄光, 아름다움이며 眞理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라는 모든것에 優越할 뿐이다.

有名한 西欧史学家 〈기본〉 (GIBBON)은 이스람教의 神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함맏의 信條에는 模糊한 懷疑가 없으며 쿠란은 神의 唯一性에 대한 栄光의 証言이다. 멕카의 予言者는 腐敗하는 物体는 반드시 消滅하고 生은 반드시 死를 隨伴하고 떠오르는 것은(出), 반드시 지는(没) 법이라는 理性的 原理에 입각하여 偶像崇拜, 人間崇拜, 日月星辰崇拜를 拒否하였다. 그는 宇宙創始者의 無限大, 永遠不変性, 時空을 超越하고 神自身의 必要에 따라 神의 完璧한 倫理와 知性에서 由来하여 人間의 은밀한 思想속에 나타나는 絶対者임을 알고 熱誠的으로 崇拜하였다. 그 至高한 眞理는 쿠란(経典)에 의해서 形而上学的으로 精妙하게 定義가 내려져 있다. 哲学的 有神論者는 널리 알려져 있는 무함맏의 信條에 署名을 할일이다."

2. 宇宙의 統一性

이스람教에 의하면 宇宙의 統一性, 다시 말하자면 創造와 그 目的의 統一性은 造物主의 單一性에서 由来하는 것이다.

即, 宇宙는 秩序인 것이다.

3. 人類의 單一性

이스람은 全人類를 하나의 "有機体" 即 單一家族으로 看做하여 世

俗的인 差別, 即 人類, 皮膚色, 言語, 国籍의 差別로서 優越을 가릴 수 없음을 強調한다. 한가지 差別이 있다면 그것은「敬神과 義로움」(이것을 〈따그와〉(taqwa)라고 한다.)即, 倫理的인 面과 精神的인 面에서 発揮하는 価値 여부에 따라서 差別이 있을 뿐이다.

英国의 著名한 이스람批評家인 H.A.R 김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이스람은 民族相互間의 理解와 協助의 厳格한 伝統을 가지고 있다. 許多한 種族間의 地位, 機会, 努力을 成功的으로 団結시킴에 있어 다른 어떤 社会도 이스람社会만큼 記録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東拜社会와 西拜社会의 対立을 協調로서 代置시킨다고 할 경우에 이스람의 調整은 떼놓을 수 없는 條件인 것이다."

(이스람은 어느곳에? p. 379)

4. 宣教의 統一性

이스람에 의하면 人間의 知慧는 그것이 제아무리 強大한 재量이라 한들 自然的 限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에게 眞理의 根源과 人生의 規範에 관한 확실한 知識을 지적해 주는 科学이란 없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 앞에 開放되어있는 확실한 지식의 源泉이란 오직 "神의 指導"가 있을 뿐이며 이것은人間이 地球上에 생존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있어왔던 過程인 것이다. 여기에 알라는 "使徒들"을 보내어 人類에게 神의 指導를 啓示한 것이고 또한 이제까지 啓示된 모든 宗教는 하나였으니 即「이스람」이었던 것이다.

알라의 使徒들은 각기 어느 限度의 範囲内에서 일을 하고저 모든 나라와 사회에 계속해서 왔다. 그러나 時代가 흐름에 따라 啓示된 神의 指導는 人間의 加筆에 의해서 喪失되거나 陥落하여 갔으며 그럴때 마다 새로운 予言者들이 새로운 啓示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人類는 幼年에서 成年으로 成長해 왔다.

그리하여 人類는 급기야 成長期에 도달하여 実質的으로 하나의 家族을 이루게 되자 分派的인 啓示가 아닌 完全하고 最終的인 啓示가 全人類와 모든 時代에 걸쳐 내려지게 된것이다.

従前의 모든 啓示를 要約하여 宗教의 統一性에 結論을 내린 이 啓示가 即「이스람」이고 이 啓示를 간직한 것이 "쿠란 経典"이며 그 予

言者가 "人類의 指導者인" "무함맏" (알라여 그를 축복하소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담"을 비롯하여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에 이르는 모든 予言者들은 무스림의 予言者들이며 이들 予言者 중 聖무함맏이 最終的인 예언자인 것이다.

또한 모든 聖経은 무스림의 聖経인 것이다. 그러나 무스림은 쿠란(経典)만을 追従함이니 이는 쿠란만이 本来의 純粋性을 견지하고 있고 이스람教는 人間이 生存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옳바른 宗教를 믿어온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기 때문이다.

5. 性別의 單一性

機能의 差別待遇는 世界의 文化를 그릇친바 있으니 例를 들면 女性의 地位問題인데 女性은 劣等種이며 附属物로서 非人道的 取扱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看做되어 왔다. 그러나 이스람은 이러한 観念을 強力히 拒否하고 人間은 男女分別없이 同一한 起源에서 発生하였으므로 同一한 地位를 享有함을 가르친다.

男女의 技能과 利害는 相反되는 것이 아니라 相符하는 것이다. 따라서 両性의 自然的인 関係는 모든 面에서 사랑과 調和의 関係이며 이 사랑과 調和 없이는 眞正한 人間의 進歩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6. 階級의 單一性

이스람은 相反하는 利害를 解決하여 모든 社会的 葛藤을 除去하므로서 平等한 社会 建設을 目標로 한다.

이스람은 経済面에 있어서 富益富를 許容치 않는 原則下에 法律과 憲法에 立却「資質의 協同国家」를 考察하고 政治面에 있어서는「正義의 従事者의 協同国家」를 支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람国家는 主権은 오직 알라의 所有일 뿐이고 알라의 이름과 알라의 意思에 依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人間에게는 人間의 統治権이 없는 것이다.

国家元首라 한들 法律以上의 것이 아니며 絶対的 正義가 標語이고 正義確立이 그 目標인 것이다.

이스람社会의 道徳은 敵対的인 批評家의 입에서 조차 讃同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西洋学者들의 見解를 例挙하기로 한

다.

H. G Well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스람은 세계의 어느 社会보다도 暴力과 圧迫이 없는 社会를 建設하였다」(歷史概論 p. 325)

H. G. R. Gibb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誇張된 敵愾心에 充満해 있는 西欧社会에서 이스람은 아직도 均衡을 維持하고 있으며 欧羅巴 民族主義의 無政府状態와 소련共産主義의 千偏一律的인 編成을 同時에 反対하면서 現今의 구라파와 소련이 똑같은 性格을 띄고 있는 經済的 強迫観念에 屈服한적 없다„

(이스람은 어디에 ? p. 378)

Louis Massignon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람은 平等主義의 概念을 堅持하는 功績을 가지고 있다…이스람은 資本主義와 共産主義의 中間路線을 取하고 있다„

(이스람은 어디에 ? p. 378)

7. 人間活動의 統一性

이스람은 人間의 個性을 하나의 統一性으로서„생각한다. 따라서 「世俗的인 것」과 「宗教的인 것」을 区別해서 취급하는 것은 非科学的이고 不合理的하며 터무니 없는 것이다.

무스림의 人生은 私生活, 社会生活을 막론하고 神을 위한 生活, 神만을 위한 生活인 것이다.

比較宗教学者인 Dadley Wright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람은 信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日常生活인 것이다.

쿠란에는 때때로 些少한 日常生活의 雑事까지도 言及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무스림의 生活은 神을 위한 生活인 故로 그것은 絶対로 些少한 것이 아닌 것이다. 무스림의 目的은 神과의 結束에 있으며 모든 面에서 神의 知識을 쌓는 努力에 있는 것이다. 搖籃期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스림은 神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2) 神에 歸依하는 宗教

"이스람"이라는 말은 "歸依"라는 뜻이다.

이것을 宗教的用語로 "神의 攝理에 歸依"라고 한다. 따라서 "이스람„은 "自然„과 併合한다. 왜냐하면 "自然„은 異議없이 「神의 攝理」에

歸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自然속에서 例外는 오직 人間이다. 人間은 自由意思에 의하여 "이스람"을 択해야만 되는 것이지만 神의 創造物과 同列에 서므로서 자기의 運命을 갖는다.

独逸의 詩人이며 哲学家인 "괴테"는 "사람들은 모두 自己自身의 특별한 意見을 찬미하고 있지만 그것은 理解不足이다. 이스람은 神의 攝理에의 歸依이니 우리 모두 이스람에 살다가 죽는 것이기에…" 라고 진술하였다.

(3) 自然의 宗教

"괴테"의 이 진술은 무스림이 된다는 것은 자기 주변의 "自然"과 調和를 이루어 참다운 人間의 性質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성장해 감을 말하는 것이며 聖典은 이점을 明確한 句節로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스람은 自然法則과 一致하는 것이다.

(4) 苦行의 宗教

"神의 攝理에 歸依"와 "自然法則과의 一致"의 概念이 生活面에서 철저히 認識될 때 그것은 가장 健全한 形態의 "苦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스람은 가장 우수한 宗教이다.

H. G. Wells는 그의 著名한 書述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苦行과 歸依가 이스람教로 하여금 훌륭하고 경배할만 한 宗教로 승화시켰다고생각하며 苦行과 歸依의 精神이 現代世界에 貢献하는 바 많은 것이다"

独逸의 東洋学者인 Friedrich Delitzsch은 "神의 攝理에 服従해야 하는 義務가 무스림으로 하여금 그들이 不運에 處할 때 模範的인 忍耐力을 発揮케 하고 災難에 處할때 尊敬할만한 精神力을 간직케 한다"라고 말하였다. (Die Welt des ISLAM p. 28)

(5) 眞理의 宗教

"眞理"의 概念은 이스람思想의 関鍵을 形成하여 이스람이 提示하는 宇宙的 秩序에까지 미친다. 그것은 이스람教徒의 人格形成의 礎

石인 이스람的 倫理法典의 基本価値의 "眞実性"을 말할뿐 아니라 쿠란에는 神 즉, "眞理"라 하였고 予言者 聖무함맏은 "眞理의 所持者"라 하였으며 쿠란 自体가 "眞理"이고 來世의 住居地를 "眞理의 座"라 하였다.

(6) 禁忌의 宗教

이스람은 딴 어떤 宗教보다도 "純粋性"과 "禁忌"의 宗教이다.

이스람은 마음과 精神의 純粋性을 強調할 뿐아니라(이점은 딴 종교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肉体의 純粋性도 強調하고 있다. 그 根本原理는 調和를 이룬 人格 涵養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람은 몸과 마음, 또는 둘다를 不健全케 하거나 害치는 酒類와 飲食物은 이를 厳格히 禁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람의 禁忌는 酔하게 하는 물건 (酒類 麻薬 等) 뿐만이 아니라 人体의 発育에 害로운 飲食物까지도 包含한다.

結果的으로 이스람의 禁忌는 나쁜 思想, 感情, 行為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7) 美의 宗教

딴 宗教와는 달리 이스람은 世上을 軽蔑하는 宗教가 아니며 基本的인 価値에 対하여 消極的 態度를 취하지 않는다.

神이 人間에게 賦與한 모든 機能과 能力을 積極的으로 確実히 完遂하는 宗教이다. 따라서 審美的인 文化는 이스람 生活의 一部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스람的 道德과 精神에 의해서 統率되어야 한다. 이스람에 있어서의 「美」의 概念은 人間活動 全般에 아니 全体的인 宇宙의 秩序에 스며있는 것이다.

予言者 聖무함맏 (그에게 神의 平和를 내리소서)은 말하기를 "알라는 美自体이며 또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하였다. 思想의 美, 言語의美, 行為의 美, 創造的活動의 美는 이스람의 理想이다.

이스람은 精神的, 道德的 活動의 範囲内에서 芸術의 創造를 許容한다. 그러나 이스람의 모토는 "芸術을 위한 芸術이 아니라 人生

을 위한 芸術"이어야 하며 이것만이 精神的, 肉体的 美의 眞正한 融合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合理的이고 調和를 이룬 人生目標를 위하여 芸術作業을 해야 할 일이다.

(8) 理性의 宗教

이스람에서는 "理性"을 人間의 本能的 特権, 神이 人間에게 부여한 高尚한 선물로 看做한다. 쿠란은 人間이 社会的 自然的 現象을 取扱할 때나 또는 神의 "福音"을 理解하고 神의 "指導"를 실행할 때 "理性"을 앞세우므로서 日常生活에 있어 適所에서 "自己判断"을 할것을 거듭 反覆하여 勧奨하고 있다.

이스람에서는 知的文化는 人間生活을 硏究하는 가장 高尚한 作業의 하나이며 知識의 探究와 開発은 男女무스림의 義務인 것이다

(9) 迷信을 否定하는 宗教

이스람은 積極的인 理性의 宗教이며 神秘스런 祭式과 秘教는 이를 盲目的인 믿음으로서 拒否한다.

迷信의 否定과 이스람의 "理性"을 肯定하는 Godfrey Higgin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함맏의 宗教는 聖骸, 彫像, 絵画, 神의 어머니 같은 것으로서 教理를 辱되게 하지 않는다. 作用을 가하지 않고도 信仰心의 효험이 생기게 한다든가 臨終時의 悔改는 모든 罪를 贖罪시켜 준다든가 赦免이나 告解의 효험같은 것을 믿는다 든가 하는 教理가 아니다.

그러한 教理는 사람을 우선 腐敗시켜 놓은다음 이들을 聖職者의 힘속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放置해 두는 것보다도 더욱 부패시키고 타락케 하는 것이다. 이스람에는 이런것은 없다. 어미도 없고 神秘와 仮装된 奇蹟도 없는 단 하나의 神을 崇拜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저 한 사나이가 보내여진 이 종교는 아라비아의 唯一神教의 간단하고도 중요한 教理를 구성하고 있다."

(Apology for Muhammad)

(10) 実践의 宗教

이스람은 錯雑하고도 理解하기 어려운 宗教儀式을 通해서 人間에

게 教授을 준다는 그러한 宗教와는 날카로운 対照를 이루고 있다.

單純性(簡潔性)은 이스람의 標語이고 理性은 그 生命의 피다. 이스람은 信仰과 実践이 一致하는 宗教인 것이다. 꾸란 속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言及될 때는 반드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천"에 立脚해 있으며 前者는 空間이고 後者는 時間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1) 均衡잡힌 進歩의 宗教

이스람的 人生은 "潜在機能을 発掘"해 내는 生活이다. 따라서 무스림은 항상 계속해서 進歩를 위한 努力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進歩는 正義의 支配下에 神의 指導로 啓蒙된 進歩라야 하고 美的인 것에 基盤을 두어야 하고 精神的, 道德的, 審美的, 肉体的인 人間의 生活面이 内包되어 있고 均衡이 잡혀져 있는 進歩라야 한다.

有名한 東洋学者인 H. A. R.Gibb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西欧世界内에 있어서 이스람은 誇張된 敵愾心의 渦中에 아직도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이스람의 文化生活 특히 精神生活의 開発에 있어서 이스람社会의 힘과 能力없이는 구라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스람은 어디에? p. 378)

(12) 科学探究의 宗教

딴 宗教에서는 科学을 부끄럽게 여길런지 모르지만 이스람에서는 科学의 探究를 宗教的 義務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探究는 肉体的 享楽에만 耽溺하거나 同胞를 탄압하고 暴君化하는데 目的을 두어서는 않되며 神의 創造物에 대한 知識을 増大시킴으로서 神을 사랑하고 또한 「自然力」의 統率法을 確保함으로서 人間에게 奉仕하는데 目的을 두어야 한다.

有名한 文明史教授인 Biuffault 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欧羅巴 成長史에 이스람 文化가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現代世界의 恒久的이고 顯著한 힘이며 그 勝利의 最高의 源泉인 自然科学과 科学精神을 構成하는 動力의 起源에 중대하고도 刮目할만한 影響力을 끼친것은 이스람 文化였다…. 欧羅巴의 科学이 아랍科学에 신세진바 많다는 것은 그 어떤 革命的 理論의 눈

랄만한 発見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科学이 아랍文化에서 힘 얻은바 많았으니 科学의 存在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듯이 古代世界는 科学以前의 時代였었다. 希臘의 天文学과 数学은 海外에서 輸入해온 것이었으며 이것을 希臘 文化에 完全히 適応시키질 못하였었다. 希臘人은 이것을 組織化하고 一般化하고 理論化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끈기 있는 調査方法, 積極的인 知識의 蓄積 科学方法, 細部的이고 発展的인 観察態度와 '実験的研究는 結論的으로 希臘 気質을 넘어선 것이 되지 못하였다….

所謂 科学은 새로운 研究精神 새로운 調査方法과 実験, 観察 計算의 새로운 方法, 希臘人에겐 알려져 있지 않던 数学方法의 発展 等의 結果의 産物로서 구라파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그 精神과 方法은 아랍人에 의해서 구라파에 紹介된 것이었다…

Roger Bacon 과 그 後継者들에게는 実験方法을 紹介했다는 資格이 없는 것이다.

Roger Bacon 은 무스림科学(回教徒科学)과 方法을 基督教欧羅巴에 이끌어들인 唱導者의 한사람이였을 뿐이다. 그는 아랍과 아랍科学만이 当代의 眞正한 知識에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宣言해온 사람이다.

実験方法의 創始者는 누구나 하는 것을 놓고 論議한다는 것은 구라파 문명의 起源을 잘못 取扱하는 誤謬의 하나이다. "베이콘"(Bacon)時代의 아랍人의 実験方法은 世界的으로 普及되었으며 欧羅巴全域에 걸쳐 熱心히 開拓되었었다….

科学은 아랍文明이 現代世界에 寄與한 가장 중대한 것이다. 당시의 구라파의 生命을 蘇生케 한것은 科学만이 아니었으며 이스람 文明의 수많은 影響을 구라파에 전달한 것이다."

(Making of Humanity pp. 190, 202)

H. G. Wells 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現代世界가 光明과 힘(科学的 方法)의 선물을 받은 것은 라틴民族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랍族에 의해서였다."

中世紀때부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스람에 대한 敵愾心 때문에 西欧社会는 이스람의 功績을 認識함에 매우 느렸다.

그러나 실전 좋건간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인식함에 이르러 급기야 무스림이 서구사회에 科学的 靈感을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면 무스림은 이 科学的 方法과 科学的 靈感을 어디에서

받았던 것인가. 쿠란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도 드디어 西欧社会가 인정하게 된 것이지만,

Stanislas Guyar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七世紀 경 의 旧世界는 고민속에 놓여 있었는데 아랍族의 征服은 여기에 새로운 生命素를 불어넣어 주었다.…

即, 무함맏이 아랍族에게 쿠란을 주었으며 이것이 새文化의 始発点이 된것이다.

(Encyclopesie des Sciences Religiouses, Jome IX p. 501)

이스람의 反対者에 挑戦하고 있는 A. Bertherand는 쿠란에 言及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偉大한 "経典"을 읽고 瞑想케 하라. 偶像崇拜와 物質主義에 対하여 끊임없이 攻擊하고 있음을 句節마다 볼 수 있으리라. 또한 予言者 무함맏은 燦爛한 世界와 創造의 神秘스런 現像에 대하여 항상 注目하고 瞑想할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予言者 무함맏의 忠言을 順従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놀라운 文明을 創造한 사람들인 것이다." (Contribution des Arabs au progres des Sciences Medicales, p.6)

Emmanuel Deutsch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란의 도움으로 人類에게 光明을 비쳐 주고저 아랍族이 구라파에 왔던 것이다. 世界가 暗黒에 쌓여있을 때 그들만은 구라파에 哲学, 医学, 天文学, 노래의 기술을 가르쳐 준것이다."

(13) 労動을 神聖視하는 宗教

이스람에서는 모든 正當한 労動을 神聖視하며 노동은 人間 発展의 生命素를 이룩한다.

쿠란에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나니"라고 하였고 予言者 聖무함맏(그에게 神의 祝福을 내리소서)도 "일하는 자는 神의 사랑을 받는도다"라고 하였듯이 이스람에서는 懶怠는 罪이고 勤勉은 美徳이다.

(14) 倫理的 理想主義의 宗教

이스람은 "神께 歸依"한다는 倫理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神의 属性

을 模倣할 것을 倫理的 理想으로 하고 있다.

予言者 聖무함맏 (神이여 그에게 축복을 내리소서./)은 "神의 属性이 마음에 배게 하라"고 하였다.

Richard Gregory卿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宗教的 倫理의 最高 形態는 神의 攝理에 完全하고 묵묵히 服従을 할것을 行為의 目的으로 함에 있다…. 이 服従은 例를 들면 神의 属性과 一致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聖徒다운 理想으로서 肉慾의 限界를 내린다던가 하는 人生 規範을 즐거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報償을 바라지 않고 正義 그 自体에서 그치는 正義의 慾望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報償을 바라는 마음에서 正義의 慾望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이 生에서의 報償이 아니라 来世의 報償을 바라는 마음에서 正義의 慾望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宗教的 倫理의 이 概念이 人間行為의 最高理想에로 到達하는 것이다." (科学과 文明에 있어서의 宗教 p. 63)

(15) 平和와 親善의 宗教

"살람"(Salam)이라는 낱말은 "平和"라는 뜻이며 "이스람"(Islam)이라는 낱말의 語根과 同一系統이다. 이와 같이 "平和"의 概念은 "이스람"이라는 낱말의 중요한 部分을 구성하고 있다.

참으로 이 概念은 이스람教 속에 거듭 거듭 스며들어 있다. 쿠란(經典)에 의하면 神은 "AS-SALAM"(앗 살람) 即, "平和의 샘"이며 무스림의 인사는 무스림 人生観의 理想을 具体的으로 表現하는 것으로서 인사를 "앗 살라무 알라이쿰, (As-Salam-U~Alaikum)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대에게 平和가 깃드시기를" 하는 말이다.

따라서 무스림 人生観의 理想의 하나는 모든 면에서 平和를 達成하는 것, 調和를 이룬 自覚을 通하여 自我의 平和를 達成하는 것, 神의 攝理에 대한 基本的인 態度를 持続함으로서 同胞(人類)와의 平和를 達成하고 神의 攝理에 歸依함으로서 神과의 平和를 達成함에 있는 것이다.

(16) 鬪争(聖戦)의 宗教

그렇다고 해서 이스람의 平和의 概念은 유-토피안(空想的 楽園主義)이 아니다. 이스람은 實践的 宗教-聖戦(지하드 Jihad)의 宗教이며 不自然하고 非現実的인 行為를 勧奨하지 않는다. 例를 国際関係에서 들어보면 根本的으로 平和와 親善 増進을 図謀함은 물론이지만 正義의 正当防衛 아니 平和 그 자체를 위하여 싸움이외엔 딴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即, 싸움이 道義的으로 不可避할 경우엔 이스람은 무스림이 싸움에 参加할 것을 許容하는 것이다.

이스람 歴史上 悪意的으로 전쟁과 관련시켜서 이스람을 曲解하고 있는 이 "聖戦"(지하드 Jihad)의 낱말은 "鬪争"이라는 뜻인데 이스람에 의하면 "鬪争"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自己의 低俗한 自我를 高度의 自我에 복종시키는 鬪争이다. 이것은 次元이 높은 "지하드"로서 주로 精神的인 鬪争이다.

둘째는 集団的으로 悪의 勢力을 敗北시키는 鬪争으로서 이것을 集団的 지하드(聖戦)라고 한다.

集団的 聖戦 또한 説教의 改革을 통해서 集団生活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이스람의 布教와 導入을 하는 平和스런 것과 侵略者에 対戦하는 두가지가 있다.

이스람의 싸움의 許容은 根本的으로 防衛目的을 위한 싸움이다. 그리고 또한 이스람은 戦争에서 不道徳的인 圧迫을 除外할 뿐 아니라 人間의 尊厳性이 戦争의 不道徳性을 능가해야 할 堅固한 倫理에 置重한다.

O. Houdas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란에는 '그리고 너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와 神을·為해 싸우라. 그러나 먼저 攻撃함으로서 不義를 저지르지 말라. 진실로 神은 不義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二章 百九十節)

聖戦은 侵略으로부터 이스람을 防衛함에 価値判断이 내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무스림은 被征服者에 대하여 항상 寛容을 베풀어왔으며 被征服者의 立法과 宗教的 信仰을 放任하였던 것이다."
(La Grande Encyclopaedie Jome 20, p. 1006)

"싸움에 이겼을 때 무스림은 幅넓은 寛容을 베풀었으나 기독교 국가들은 이점이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E. Alexander Powell 은 그의

著書에서 지적하고 있다. (무술림, 亜細亜의 権力闘争 p. 48)

(17) 強制的으로 改宗시키지 않는 宗教

"信仰에 強制란 있을 수 없게 하라"고 쿠란에 明示되어 있듯이 이스람은 強制的인 改宗을 禁하고 있다. 무스림은 한손에 칼, 한손에 쿠란을 들고 非무스림을 改宗시켰다는 宣伝은 순수한 虚偽날조다.

宣教師인 O. Leary博士와 같은 이스람의 敵対者조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狂信的인 무스림들이 世界를 席捲하여 被征服者에게 칼을 더리대어 이스람을 強要했다고 史学家들이 反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터무니 없는 엉터리라는 것은 歴史가 証明하고 있다"

(十字路上의 이스람 p. 8)

(18) 兄弟愛의 宗教

이스람은 모든 神의 創造物을 사랑할 것과 특히 人間家族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聖무함맏(神이여 그를 축복하소서) 은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자는 神의 家族에게 (即, 人類) 가장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스람은 人類를 "이스람 兄弟愛"에 입각한 "한兄弟"로 생각한다. 이 「이스람 兄弟愛」에는 身分, 種族, 民族, 皮膚色, 言語 国境이 없으며 그럼으로서 人間 兄弟愛를 위한 神의 従이자 넓은 守護者로서 機能을 発揮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스람은 또한 무스림이 人間社会와 関係를 맺는 人間愛의 礼法을 提示해주고 있다.

이스람의 兄弟愛는 단순한 말에 끝이는게 아니라 모든 信者는 平等한 것이다.

"現今 무스림世界"라는 著書에서 和蘭의 東洋学者인 Smouck Hurgronje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人類聯盟의 理想은 다른 如何한 思想에 依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스람에 의해서 한결 가까이 接近하였던 것이며, 무함맏의 宗教위에 세워진 国際聯盟은 人類平等의 原則을 採択하였던 것이다"

⒆ 精神的 民主主義의 宗教

禮拜面에서 볼때 이스람은 聖職者의 仲介없이 神과 人間과의 直接 연결을 시킨다. 따라서 무스림 男女는 저마다 神의 代理人인 것이다. 이스람学者(울라마, Ulama)와, 聖院에서 合同禮拜의 執典者(Imam)을 聖職者인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스람을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무스림이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며 "울라마"는 단순한 학자 혹은 이스람 知識의 專門家일 뿐이며 모든 무스림 兄弟들의 어깨위에 걸머지워진 責任을 이행할 뿐인 것이다.

이스람은 모든 男女 信者들이 教理를 가르치는 学者가 될 것을 원하는데 이점 딴 종교,예를 들면 힌두教같은 종교와는 判異한 点이다.

힌두教에서는 "브라만„ 階級만이 그와 같은 特權을 갖는다 (註"브라만„은 印度의 四階級中 가장 높은 僧侶階級) 基督教 宣教師이며 이스람에 敵愾心을 품고있는 批評家 W. Wilson Cash 牧師도 나중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告白하는 수 밖엔 없었던 것이다.

"이스람은 그 信徒들에게 尊厳함을 부여하였고…神에게 直接 接近케 하는 점이 이스람의 가장 強力한 呼訴의 하나인 것이다.„

(The Expanssion of Islam p. 177)

⒇ 人間尊厳性의 宗教 — 奴隷問題

自由는 모든 人類의 生得權에 해당한다는 것을 強調함으로서 階級制度, 皮膚色, 国籍의 差別없이 人類는 平等하다는 것을 宣言함으로서 性惡說과 原罪說을 否定했고 人間은 萬物의靈長임을 断言함으로서 人類의 地位를 神의 代理의 자리로 이끌어 올렸으며 神의 屬性을 模倣함을 人類의 倫理的 理想으로 삼아 宇宙의 征服은 人間에게 부여된 運命이라는 것을 指摘함으로서 이스람은 人間의 尊厳性을 가장 높은 곳으로 까지 이끌어 올려 놓은 것이다.

이스람 以前의 文化와 宗教가 지니고 있었던 그릇된 觀念으로 因하여 人間의 尊厳性은 여러 手段으로 迫害를 받아 왔었다.

階級, 種族, 民族의 이름으로 残酷性이 만연해있었고 大部分의 人間들은 오래된 制度인 農奴와 奴隷의 地位로 格下되어 있었다.

이 制度는 아랍族을 포함한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民族들이 "바이블„과 같은 聖書의 裁可를 얻어 조금도 良心의 可責을 느끼는 바

없이 實行해왔던 것이다. 이스람은 이와 같은 惡에 대항하는 용감한 絶叫를 함으로서 유린당하고 抑圧당하는 사람들에게 救世主 노릇을 할 哲学의 法律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이스람의 敵에 의해서 그릇되게 알려진 概念중의 하나가 奴隷制度에 관한 것이다. 奴隷制度, 廃棄에 関한 이스람의 役割을 正当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拙著 "이스람과 奴隷制度" (Islam and Slavery)를 参考해 주기 바란다.

이스람法은 "奴隷를 獄에 가두거나 公売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쿠란에는(二章) "그들을(奴隷) 구하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奴隷로 보내는 것을 禁하느니라"고 되어 있다.

(21) 理性的인 性道德의 宗教 – 多妻主義의 問題

性의 平等에 관한 이스람 思想은 前述한 "統一性의 宗教"에서 이미 言及한바 있거니와 이 問題에 対한 歷史的 評価는 이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Lady Evelyn Cobbold 는 "메카 巡禮記"라는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人類史에 最初부터 있어왔던 女人의 束縛을 除去하여 女人에게 社会的 地位와 法律権을 준것은 이스람이었는데 数世紀후에 이르기까지 英国에서는 女人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多妻主義와 関聯시킨 이스람의 敵들의 宣言때문에 여기에 関한 特別한 叙述을 必要케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多妻主義는 이스람이 発明한것도 아니었을 뿐아니라 전연 義務的인 手段도 아닌 것이다. 多妻主義는 우리의 記憶에서 먼 이스람 以前 社会때부터 있어 왔으며 宗教에서도 이를 裁可하였던 것이니, 例를 들면 旧約聖書에 나오는 聖人들까지도 이를 實践해왔던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것을 統率할 法律이란 없었으며 이스람 以前의 아랍社会에서도 例外는 아니었다. 이스람은 이것을 団束하여 非常事態外에는 厳禁한다는 徹底한 制限을 내린 것이다.

사실이지 一妻主義가 이스람 社会의 理想이며 多妻主義는 하나의 例外일 뿐인 것이다. 이 事實은 이스람 社会에서 現在도 유지되고 있고 過去도 그러했었다.

William Kelly Wrigh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部分의 무스림은 어느 時代이고 一妻만을 갖이고 있었다.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1935)

이스람은 自然스런 宗教이며 性的 不道德과 社会的 疾患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立場을 取한다. 따라서 그것만이 唯一한 救済策일 수 있는 狀況下에서는 社会的 健全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制限附 多妻主義를 許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戦争이 男女 比率에 変動을 招来하여 女子가 우세하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는 두가지 方法, 亮淫行為와 多妻主義밖엔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道德의 健全과 女性의 社会福祉의 利得에서 이스람은 前者보다는 後者를 択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첫번 아내가 出産을 못하거나 難治의 病에 걸려있을 때 거기에는 두가지 可能한 方途밖엔 없는 것이며 첫번 아내는 離婚당하고 남편은 다시 아내를 맞이해 드리거나 아니면 남편의 둘째 아내와 함께 풍파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다.

前者는 첫번 아내의 독신을 강제하는 것이 되지만 後者는 첫번 아내가 나쁜 誘惑을 받는 일 없이 正常的인 삶을 営為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生理的 慾求를 満足시키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女子를 갖는 多淫性 男子는 医学的으로도 不治임으로 이런 경우의 남자에게 多妻主義는 必要不可缺이기도 한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責任感과 조건부의 多妻主義는 形式的인 一妻主義의 偽善的인 執着보다도 훨씬 健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람에서는 一妻多夫主義를 許容치 않는다. 그것은 心理的으로 不健全하고 社会学的으로 非現実的이고 生理学的으로 肉体的 健康에 매우 危険하기 때문이다. 一妻多夫主義를 하고 있는 原始部族中에는 性病이 満延해 있다.

多妻主義에 대하여 Annil Besant 博士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西方社会에는 仮装된 一妻主義가 있고 또한 責任없는 多妻主義가 있는데 "아씨들"은 남자가 싫증이 나면 버림을 받고 점차적으로 "거리의 女人"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다. 왜냐 하면 첫사랑의 恋人은 그女의 장래에 대해서 責任을 지지 않으므로 家庭主婦로서 多妻의 家族에서 사는 것보다도 몇百倍나 불우한 것이다. 우리가 西方世界의 밤거리를 헤메는 수많은 불쌍한 女人들을 볼때 이스람은 다처주의라

고 비난하고 있는 西方人들이 얼마나 허위에 차있는가 하는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女人이 환경에 의해서 타락하고 거리로 팽개쳐지고 그리하여 法의 保護밖에서 私生児를 낳게 되고, 가정없이 버림을 받게 되고, 밤마다 지나가는 남자의 犠牲物이 되고 母性으로서의 할바를 하지 못하게 되어 모욕을 받는 사람이 되느니 보다는 多妻主義下에서 한남편에 結合되어 嫡子를 팔에 안고 남의 존경을 받아가며 사는 것이 여자로서는 월등하게 좋을 뿐 아니라 한층 행복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다.

J. E. Clore Hefarlane는 "多妻主義의 実態"라는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西方社会의 国法은 教会의 教理에 立脚하여 딴남자가 한 女子 以上 결혼한다던가 한 女子가 여러 남편을 갖는 것을 犯罪로 하고 있다… 一妻主義는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唱導되었다고 하는 것은 眞実이 아니다….이 문제를 社会的으로 道德的으로 또는 宗教的으로 考察하드라도 多妻主義는 高度로 発達한 文明水準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것은 立証할수 있는 것이다… 이 多妻主義는 가난한 女人과 不必要한 女人에 대한 西欧社会의 問題에 대한 現実的인 救済方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対는 売春行為, 蓄妾制度, 強制的인 独身生活을 계속시키고 増加시키는 것이다"

(訳者 註 — 이스람의 女性의 地位에 관해서는 同著者의 「이스람의 女性」 (Woman under Islam)을 参考해주기 바란다.)

(22) 現世와 来世의 救援을 함께 祈願하는 宗教

사람이 죽은 다음의 救援 — 即, 来世에서의 救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의 人間救援도 아울러 祈願하는 것이 이스람教의 独特한 점이다.

이 目的을 위하여 이스람은 道徳的 完璧과 社会的 進歩, 経済的 正義와 政治的 健全性과 같은 말하자면 人間의 世俗的인 生活과 全人類의 調和된 進化에 있어서 眞正한 人類의 幸福을 現実的으로 認識하고 成就하는데 必要한 넓은 「指針」을 具備하고 있는 것이다.

Laura Veeccia Vaglieri 는 그의 著書에서 (Apologie de Llslamisme

p. 88)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종교는 人間의 抱負에 応用시키는 理論으로서만 満足하진 않고 또한 活用할 수도 있고 活用하지 않을 수도 있는 崇高한 戒律을 制定해 놓음에만 満足하지않으며 生活의 規範도 아울러 具備하여 人間道義의 根本的인 原則을 組織的 積極的으로 確立하였고 넓은 知的発展에도 矛盾이 없는 方法, 原則的으로 自身과 他人에 対하는 人間의 義務를 公式的으로 表示해 놓았다."

(23) 確実하고 完璧한 経典을 가진 宗教

쿠란에는 다음 세가지 根本的인 長点을 가지고 있다. 即,

① 本文의 確実性

② 文体의 完璧性

③ 理性的이고 広範하고 深奥한 指導

이 세가지 長点을 이스람의 概論的인 이 글에서 取扱하기란 不可能하다. 그러나 些少한 口実만 있어도 항상 이스람을 攻撃해오고 있는 非무스림 西欧学者들도 前記한 内容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具備되어 있는 것이다. 쿠란의 아름다운 文体에 言及하여 Paul Casanova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함만은 그의 布教의 眞偽를 証明할 만한 奇蹟을 보이라는 말을 쿠란의 文章構成이 比較할진 없이 卓越함을 引用하여 이것이 神의 증거임을 보여주었다."

Lavra Veccia Vaglieri 는 쿠란의 完全無缺한 指導와 確実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란은 文体와 方法이 完璧할 뿐아니라 바로 그 内容 自体가 흉내 낼수 없게 되어 있는데 未来에 일어날 事件에 대한 予言이 여러 世紀前에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無視되어온 事件의 関係, 가장 特異한 科学 宗教的인 것이 啓示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쿠란은 賢者, 위대한 哲学家, 修練된 政治家들이 応用할 수 있는 知慧의 集大成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쿠란의 神聖에 対한 証拠가 담겨 있으며 이것은 啓示 初期부터 이르는 동안 오랜 時代를 통하여 完全히 保存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宇宙가 存在하는 限 神의攝理와 더불어 항상 남아 있으

리라. 무스림 世界 구석구석에서 읽혀지고 또 읽혀지는 이 책은(쿠란) 읽는 사람에게 하등의 倦怠를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反復해서 매일 같이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쿠란은 쿠란 朗誦者와 聽取者에게 深遠한 敬神과 尊敬의 念을 불어 넣어 준다."

(Apologie de L' Islamisme, pp. 57~59)

(24) 教理가 가장 簡単한 宗教

(1) 七 信

① 알 라	⑤ 来 世
② 天 使	⑥ 定 命
③ 經 典	⑦ 復 活
④ 使 徒	

(2) 이스람의 五柱

① 神은 하나이고 무함맏은 神의 使徒라는 信仰의 告白(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맏을 라수룰라)

② 禮 拜

③ 断 食

④ 쟈카트(救貧税)

⑤ 메카 巡禮

어느 基督教人 이스람 批評家는 다음과 같이 告白하였다.

"이스람은 그 神学의 単純性, 教理와 原則의 明確性, 一定한 実践事項으로 사람의 靈魂을 平和的으로 征服시키는 힘을 가졌다. 初創期부터 계속적으로 変質해온 基督教와는 対照的으로 이스람은 変함 없이 내려왔다."

(Jean Lheureux : Etude Sur L' Islamisme p. 35)

(25) 完璧하고 人間의 極致인 무함맏

무스림은 이세상 모든 人類의 優位에 있는 予言者 聖무함맏을 사랑하고, 가장 完璧한 人間의 権化이며 絶対的인 指導者, 最終 予言者로서 그를 믿고 이스람 信仰을 構成하는 不可缺한 "最高의 模範" 으로서 그를 追從한다.

이것이 이스람의 予言者 聖무함맏의 神学的 身分인 것이다. 혼히들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証言은 敵陣에서 보내져 온다"고 하였드시 聖무함맏에 관한 西欧学者의 말을 引用하기로 하겠다.

무함맏은 外貌가 堂堂한 長身이었고 風采좋은 顔色과 容貌에 豊富한 想像力, 品位있는 마음, 纖細하고 端正한 感情의 所有者였다. 그는 커틴뒤의 處女보다도 수줍은 사나이었다고 한다.

그는 손아래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썼으며 몸종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꾸짖는 일이 없었다.

'나는 使徒님 곁에 十年을 모시고 있었지만 〈아 저런〉하시는 말씀외엔 꾸짖는 말씀을 들어본일이 없었읍니다'라고, 그의 몸종 '안나,는 말하였다." 그는 가족을 여간 사랑하지 않았다. 대장간집 아내인 乳母집 연기 자욱한 곳에서 그는 이들의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였으며 路上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한번도 남을 때린적이 없었다. 가장 나쁜말을 썼다면은 그것은 '나한테 뭐하러 왔오? 그 이마에 흙칠을 해줘야겠군!,하는 말을 써본일 밖엔 없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었을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남을 저주하러 태어난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저 온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병석에 누어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고 상여가 지나가면 棺 뒤를 좇아가고 奴隸가 초대하는 저녁식사를 거절한적 없고 떠러진 옷을 손수 꿰매고 손수 양젖을 짜고 남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남과 만나서 악수할때 저쪽에서 손을 떼기 전까지는 먼저 손을 떼지않고 저쪽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먼저 돌아서는 법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에겐 가장 신앙심이 강한 보호자였으며 부드럽고 수긍이 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그가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존경하는 마음이 가슴에 그욱해지는 것이었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를 존경하였고 "저런 사람은 전에도 본일이 없고 이다음에도 없을거요"라고 하였다.

그는 매우 寡默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면 力説과 細心으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棕櫚나무 잎사귀와 흙으로 만든 보잘것 없는 흙집에 살며 때

로는 나무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방바닥을 쓸어 내고 손수 양젖을 짜내기도 했다. 밥상머리에 끼어들고저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도 넉넉지 못하면서도 나누어 주곤 하였다. 진실로 예언자의 집은 하나의 椅子나 待合室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는 순전히 予言者의 寬大에 依存해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끊일사이 없었으며 그러기에 "의지의인간"들이라고 불려왔던 것이다.

그의 보통식사는 "메이트"(棗椰子)와 물, 혹은 보리빵이었고 밀크와 꿀은 퍽 좋아하였으나 사치스런 음식이어서 여간해서 먹지않기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막의 음식물은 그가 아라비아의 主權者가 된 후에도 가장 마음에 맞는 음식이었던 모양이다.

한 인간이 언제나 부드럽고 수줍어 하고 그런가하면 영웅적일 경우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尊敬과 거의 愛情에 가까운 감정에 빠진 나머지 盲目的인 判斷을 내릴 위험성이 있는 법이다. 反対者한테서 孤立되어 여러해 동안 받아오는 미움을 무시해온 그 사람이 남과 악수를 할때 상대방이 손을 떼기전 까지는 먼저 손을 떼질 않고 길 가다 어린이들을 만나면 인자한 눈매로 微笑를 보내고 항상 친절하고 甘味로운 음성으로 말을 거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솔직, 단백한 友情, 高貴한 寬大, 屈하지 않는 勇気와 希望, 이 모든것이 反対者의 批判을 尊敬으로 解氷시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高貴한 意味의 熱狂者였으며 그 熱狂은 인간의 부패를 막아주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었다.

이 熱狂이란 無価値한 것과 손을 맞잡거나 結実을 맺지 못하는 메마른 땅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熱狂은 흔히 심술궂은 의도로 쓰여지는 수가 있다. 그러나 무함맏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熱狂이 세상을 타오르게 하는데 필요할 땐 熱狂者였다. 그러나 그의 熱狂은 高貴한 目的을 위한 熱狂이었다. 그는 위대한 眞理를 人間의生命의 샘으로 만드는 최고의 즐거움에 도달한 얼마안되는 행복한 사람중의 하나였다. 그는 唯一神의 使徒로서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과 자기의 骨髓를 이루고 있는 啓示를 죽는날 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다."
(Speechs and Table-Talk of the Prophet Muhammad Introduction XXVIII-XXX)

"카-라일"은 그의 著書 "英雄論"에서 予言者 聖무함맏의 栄光스런 布教의 成功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랍國家에게 이스람은 暗黑에서 光明으로의 誕生이었다. 아라비아는 이스람으로서 비로소 蘇生한 것이었다. 貧困한 遊牧民이 創世紀때부터 알려지지 않은채 沙漠을 漂流하여 왔으나, 거기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英雄予言者가 보내져온 후부터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곳이 世界의 注目의표적이 되었고 조그마한 곳이 世界的으로 偉大한 곳으로 커지게 된것이다. 그후 一世紀內에 아라비아는 한편엔 "그라나다(Granada … 옛 西사라센王国의 首都), 한편엔 "데리„ (Dehli)를 장악하여 燦爛한 天才의 光明이 빛나게 됨에 이르러 아라비아는 광범한 世界全域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 아랍族의 人間 무합맏은 마치 불꽃 하나가 떨어져 내려와 검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沙漠에 빛이 퍼져가고 있는것과 같지 않으랴? 보라! 沙漠은 爆発力을 立証하여 "데리„에서 "그라나다"에 걸쳐 하늘 높이 타오르고 있음을"

佛蘭書 学者 O. Houdas 는 五十年前 그의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速度와 平行에서 발전한 종교란 歷史上 없었다. 그러나 이스람은 半世期도 못걸리는 동안에 인더스江辺에서 西大洋沿岸까지 퍼져나가 十三世紀동안 存續하고 있다. 인도, 중국, 말레이지아에 浸透한 이후 이스람은 아프리카大陸으로 계속 떨어나고 있으며 아프리카大陸은 머지않아 全的으로 무스림이 되리라. 특별한 宣教事業이나 武力을 쓴일 없이 이스람은 검은大陸을 改宗시킨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小數白人 무스림 地域社会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事実이며 그들 白人들은 이스람教理를 받아드리어 布教에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스람의 구라파上陸은 현재로서는 괄목할만한 것이 못되지만 분명히 성장해 나가리라.
(La Grande Encyclopaedie jome 20 Article : Islamisme)

(26) 神의 사랑속에 吸収됨이 窮極의 目標인 宗教

알라의 사랑을 修練하고 그 사랑속에 吸収되어 甘味롭고 恍惚한 알라의 사랑이 가슴에 스미어 神의 戒銘을 어기지 못하게 됨으로서 "永遠한 삶"- 平和, 発展 完全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스림에게 負課된 窮極의 目標일 것이다.

ماهو الإسلام

تأليف

محمد أدريس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طبع على نفقة الفقير إلى عفو الله ورضاه غفر الله له ولوالديه ولأهله ولأولاده وللمسلمين
هذا الكتاب وقف لله تعالى يوزع مجانا ولا يباع